

“尹 폭정 속 대한민국 민주주의 구한 광주 시민에 감사”

민주당 광주시당 5·18민주묘지 참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힘을 보탠 광주·전남 정치권이 16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은 16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과 핵심 당원 등 100여명은 이날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주인공 ‘동호’의 실제 모델인 문재학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에는 양부남 시당위원장과 정준호·전진숙·박군택·민형배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참배에서 1980년 군부 독재에 맞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킨 5·18 희생자들과 2024년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파면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양부남(서구) 위원장은 참배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씨는 지난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친위 세력을 동원한 내란죄를 범했다”며 “그러나 위대한 시민,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고 밝혔다.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 주인공 문재학 열사 묘역 등 찾아 헌화 헌재에 조속한 윤석열 파면 촉구 무너진 민생 살리기 최선 다짐

또 “여러분의 촛불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포고문을 불태워버렸고 윤석열씨의 야욕을 꺾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선고와 수사기관의 구속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윤석열씨의 폭정으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는 일과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공식 일정을 시작으로 내란 극복과 민생회복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켰고 쿠데타 발생 12일 만에 윤석열씨를 탄핵함으로써 쿠데타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전 세계는 이 같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 정치권은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했다.

이들은 “광주시민의 함성이 윤석열씨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쿠데타군의 진입을 막았다. 여러분의 촛불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포고문을 불태워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이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이들은 “위대한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강력한 노력으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며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남은 과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렸고 윤석열 씨의 야욕을 꺾었다”면서 “전국에서 이어진 집회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살아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계엄을 막아내고 탄핵을 이끌어 낸 ‘시민의 힘’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군택(광산갑) 국회의원은 “위대한 시민의 힘과 ‘광주정신’이 이번 계엄을 막아냈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는 힘이 됐다”면서 “광주 국회의원으로서 5월 정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검찰 조사 불응한 김용현 전 장관 공수처 고발

내란 수사 어떻게 돼가나

김, 김용현 구속 기한 연장할 듯 전·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응인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다.

내란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 불응한데 이어 검찰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중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을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707특임단은 특수항공작전단 헬기를 타고 국회 앞 운동장으로 투입됐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령관은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곽 사령관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려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10일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고발을 당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해 강제인치(강제 연행)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조사는 불발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으로 강제로 인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과 특수본 박세현 본부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17일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풀려났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체포·구속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국 수감...“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다”

“날씨 춥지만 봄은 올 것...남은 과제는 검찰 해체” 일성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6일 수감되면서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나도 막아야 한다”며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루어 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국회에 제출된 검찰개혁 4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경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흥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라며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해 한용운의 시구가 생각한다. 우리는 만날 때 만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며 “가슴에 묻는 칼로 슬픔을 자른다.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조 전 대표의 약 3분간 입장 발표가 끝나자 지지자 200여명은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큰 소리로 호응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오전 8시부터 지지자 200여명이 모여들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인 13일 조 전 대표가 정당 대표직 인수계 등을 사유로 제출한 출석연기 요청을 허가해 이날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